

지역사회보장협 통합 조례안 부결 '잡음'

북구의회, 구·동 일원화 내용 조례안 상임위 처리 무산 발의 의원 "정반대 자료 배포" vs 전문위원 "수정 필요"

광주 북구의회 상임위에서 구와 동으로 이원화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발의 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이 공식적인 검토보고서와는 정반대의 심사 자료를 별도 배포해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전문위원과 상임위원장은 "문제가 많은 조례안이다"고 반박했다.

24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경제복지위원회는 최근 '광주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조례는 구(區)와 동(洞)으로 이원화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일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 위원장 연임제한, 동 단위까지 회의 수당 지급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정철 북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경제복지위 소속 전원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거나, 찬성 서명을 했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전 공동 발의자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경제복지위원이 생겨나더니, 결국 반대 3표, 찬성 2표, 기권 1표 등으로 상임위 처리가 무산됐다.

이를 두고 이정철 의원은 "전문위원이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여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며 격분했다.

그는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는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뒤로는

상임위원에게 '상당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심사자료를 제공해 다른 상임위원들에게 이를 공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토보고서를 신뢰한 대표 발의 의원에게는 일언반구 없이 심사 당일 소관 상임위원들에게만 전혀 다른 심사 자료를 배포한 것은 전문위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기존 검토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문제점을 모두 다룰 수 없어, 조례 개정 취지는 공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다"며 "다만 조례안에 20여개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견따라 상임위원에게 보고하고, 집행부 담당 부서에도 미리 알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발의 의원에게까지 해당 조례안의 검토 내용을 미리 알릴 의무는 전문위원에게 없다"며 "검토보고서와 별도의 심사 자료 작성은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생각은 또 달랐다.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조례안의 문제를 보고 받고 검토보고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으라고 했다"며 "그러나 전문위원이 상임위 검토 보고 중 의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 기존 내용을 빼버리고 '타당하다'고 읽어버렸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에 수정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수당 지급을 두고 견해차가 있어 부결된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정철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수당 문제로 이견이 있는 조례를 부결시키기 위해 전문위원이 의도적으로 20여개의 트집거리를 적시한 자료를 제작해 조례안을 누더기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며 "수당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었는데, 결국 상임위에서 이를 논의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날씨 ▶ 지역 날씨 최저/최고/기온

▶ 해돋이 06:47 해질 17:46
▶ 달출 20:38 달짐 10:52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60 (마스크 챙기세요)
- 빨래 50 (아외 건조 좋아요)
- 세차 50 (세차하기 좋은날)
- 운동 80 (준비운동은 충분해)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20-0	목포	04:18	09:32
목포	20-0		17:03	22:09
순천	30-0		11:25	04:48
여수	30-0	여수	23:10	17:21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서울) 강원영(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날짜	전라(광주)	서울경(서울)	강원영(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0월 26/화	(8/20) ☁ (8/18) ☁ (9/20) ☁ (6/19) ☁ (7/20) ☁ (13/20) ☁					
27/수	(10/20) ☁ (11/18) ☁ (12/20) ☁ (7/19) ☁ (9/20) ☁ (14/20) ☁					
28/목	(7/20) ☁ (8/18) ☁ (11/19) ☁ (6/19) ☁ (7/20) ☁ (13/20) ☁					

▶ 날씨안내 : 국번없이131



가을햇살에 비친 루드베키아 원원한 가을날씨를 보인 24일 서구 광천동 광주천변에 셋노란 꽃잎으로 물들인 '루드베키아'가 산책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있다. /김영근기자

광주전남적십자,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학생 30명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생명을 살리는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은 안전사고 방지 및 재난예방·대피·대응을 위한 청소년들의 인식개선과 재난체험 및 교육을 통한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또 실제 화재상황을 재현한 소화기 시뮬레이터 체험과 마네킹을 활용해 실습 위주의 CPR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증대시켰다.

주요 교육내용은 응급상황 및 화재발생시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교육, 적십자 이념교육이며, 총 2시간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11월까지 광주지역 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체험과 참여 위주의 재난안전교육으로 실제 재난을 체감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광주시교육청, 특성화고 보도자료 반박

특수교육대상자 정원 외 배치 등 근거들어 입장 발표

광주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등학교 비인기학과를 채운다'는 시민단체의 보도자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4일 "특성화고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정원 외로 배치되어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인기학과를 채우는 인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주장은

을 고려해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돼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전자공고, 광주공고, 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 4개교이며, 광주자연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경우 현재 재학생들이 원하는 학과에 배치돼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광주자연과학고의 경우 내부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과를 1, 2회까지 조

을 고려해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돼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전자공고, 광주공고, 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 4개교이며, 광주자연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경우 현재 재학생들이 원하는 학과에 배치돼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광주자연과학고의 경우 내부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과를 1, 2회까지 조

사한 후, 특정 학과에 학생이 몰릴 경우 특수 및 전공교과 담당교사들이 면담 및 실기 평가를 통해 배치하고 있다"며 "시민모임에서 주장하는 '학교장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이 제약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교 시설과 교직원 상황에 따라 학습권이 취급 위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특성화고에서는 학과별 정원을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다"면서 "학과 배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을 존중하되, 학교의 여건 및 교육과정 특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와 능력 등을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서구의회, 부패방지·폭력예방 교육

광주서구의회가 서구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부패방지·폭력예방 전문 강사 2명을 초청해 의원과 의회사무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원의무교육'을 최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구의회는 이번 부패방지·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해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신뢰받는 서구의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 중 ▲부패방지교육(청탁금

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은 한국인권교육원 김범대 강사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은 더마음연구소장 조이현 강사가 각각 진행을 맡았다. 김대영 의장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기본부터 충실히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공정·투명·신뢰의 기반 위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가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가득한 무안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무안군** 문의 : 062)650-2099